

설날 명절미사

중계송 : 시편 117 편 (C해)
 제1독서 : 이사 55, 6-12, 13b
 제2독서 : 로마 4, 16-25
 복음 : 마태 6, 19-21, 25-34

숲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마태 6, 34).

강론



연령을 도움시다

권영균 신부

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연령이라 함은 연옥에서 단련받고 있는 영혼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세상을 떠났으나 세상에서 지은 죄나 용서받은 죄에 대한 참벌을 미처 보속하지 못하고 떠났으므로 연옥에서 일정한 기간 단련을 받습니다. 단련기간을 채우고 영혼의 정화가 이루어지면 천국에 들어갈 영혼들입니다. 현세에 사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협력하여 기도와 회생, 사랑의 실천 등으로 세운 공로를 연령을 위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이로써 단련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백 명절의 하나인 오늘 설날을 맞이하여 외교인들은 차례를 지내지만 우리 신자들은 미사성체를 지냅니다.

오늘 우리는 각별히 연옥 영혼을 추모하며 많은 기도와 회생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연옥 영혼들은 우리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부모 형제 친척들이 연옥의 무서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다하지 못한 우리의 효도와 사랑을 오늘이라도 그들을 위해 미사를 바치고 기도와 회생으로 그들의 보속을 단축시켜 드려야 하겠습니다. 연옥 영혼을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옥 영혼을 위해 대신 보속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큰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에 연옥에 들어가게 되면 성인들의 통공에 의해 우리도 은성교회의 보속의 덕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래 및 중세기의 카타리파, 발두수파 등이 단자들은 죽은자를 위한 전구와 연옥 존재를 부정하고, 루터도 연옥신앙을 부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옥에 관한 가르침을 정식으로 선언한 것은 리용 및 피렌체 공의회, 그리고 그레고리오 13세 및 율바노 8세의 신경 그리고 개신교를 반대하여 열린 트리엔트 공의회에서였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리고 유다는 각 사람에게서 모급하여 온 이천프락마를 모아 그것을 속죄의 제사를 위한 비용으로 써달라고 에루살렘으로 보냈다"(마카베오 하 12장 43)는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만 있다면 속죄의 제사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연옥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곳이라 합니다. 성아오스당은 "금세의 아무리 참기 어려운 괴로움이라도 연옥벌에 비하면 참으로 미소하며 현세의 불에 감히 손가락도 대고 견디지 못하는 자여 연옥불에 탈까 경제하라"고 하였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옥의 악신을 태우는 불이나 연옥의 의인을 태우는 불이나 본질적으로 같다" 하시고, 단 연옥불은 유한하고 지옥불은 무한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옥불의 명멸함을 생각할 때 대죄는 물론이고 소죄나 허물까지도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고 아울러 현세에서 가능하면 많이 보속할 것을 다짐합니다. (부안 주임신부)

설날에 생각한다

오늘은 큰 명절인 설이다. (당국에서 즐겨 쓰는 민속의 날이란 표현은, 고민끝에 찾아낸 말이기 하지만, 어색하기 그지없다.) 흩어졌던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조상에게 차례를 올리고, 집안 어른과 친지들을 찾아 뵈고 인사를 나누며 축복과 격려의 말씀(德談)을 듣는 날이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의 조상의 음덕에 감사드리며,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목을 다지는 좋은 날이다.

그러나 이 좋은 날에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한숨만 쉬는 사람들이 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안부마저도 모르는 사람들, 가난때문에 남들처럼 일하지도 못하는 부모들, 한 때의 잘못으로 악의 수렁에 빠져 집에도 못들어가는 청소년들, 양심적인 소신때문에 차디찬 교도소에 격리되어 있는 양심수인(良心囚人)들... 그런가 하면 직책때문에 식구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군인, 경찰, 여객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언론인들도 있다.

옛 풍습은 참으로 지레로울다. 어찌서 설날 그믐날 일찍 잠을 자면 눈썹이 썩다고 하였을까? 아마 오랜만에 만난 식구들이 음식장만을 서로 도와 함께 하며, 밀린 정담들을 나누라는 아름다운 배려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실상은, 텔레비전의 특집 프로그램때문에 제각각 흩어져 버리고 만다. 대화를 단절시키고 쓸데없이 국가적인 부(에너지)의 낭비를 가져오는 명절날의 텔레비전 특집 프로그램, 깊이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옛날 같으면, 큰 명절에는 쌓였던 오해와 유감을 풀도록 힘썼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이 추운 겨울에도 계속되는 일부 대학생들의 시위, 일부 재야인사의 자택 연금, 언론이 통제받는다든 소리, 거기다가 치안당국이 발표하는 강경책, 참으로 우울하다. 「큰정치」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번 설날에는 무어라고 덕담을 나눌까?

숲정이 산책



기도합시다

□ 하느님 백성의 예배

~~~~ 선조를 기억하는 차례 ~~~~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절은 추석과 설날일 것이다. 이때는 먼 곳에 사는 형제들도 고향으로 돌아와 명절을 함께 지내며 이 자리에 함께 제사야 할, 그러나 이미 돌아가신 집안 어른들을 기억하며 차례를 지낸다.

차(茶)는 향기가 좋아서 옛날에는 신(神)이나 귀인에게 바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자로 차례(茶禮)라고 쓰는 모양이다. 그러나 본래 차례라는 한국말은 순서, 서열,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차례를 지내면서 자연의 질서와 하느님의 질서, 나라와 가정의 질서, 자기의 위치와 분수, 후손과 선조의 질서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엄숙하고 신성하며 아름다운 예식이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차례'가 예식과 절차에서 생활현실에 잘 맞지 않고 또 한자로 된 예식 절차를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점차 소외되어 가는 것 같다.

한때는 우리 천주교회에서도 차례를 지내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규정되어 금지되기도 했다. 지금도 차례지내는 것을 우상숭배로 여기는 종파도 있다. 살아 계시는 부모님께 배례드리는 것이나 돌아가신 선조들께 배례드리는 것은 다 같은 것이며 엄숙한 것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시든지 우리는 하느님 안에 모두 함께 있기 때문이다. 어찌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고 배례한다고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겠는가?

오늘날 차례를 제재로 지내지 않음으로써 무질서와 불효가 생기고 가문, 가족, 부모님께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고 책임의식, 뿌리의식이 없어지는 것 같다. 차례를 정성껏 지내는 가운데서 생명의 연대의식, 가문과 부모님께 대한 존경심과 책임의식이 생기며 가정과 사회가 진전해지고 질서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신자들은 명절이나 제삿날에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린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흠족하지 않다. 뭔가를 더 하고 싶고 또 더 해야 한다. 구정을 맞아 가정에서 차례를 지내도록 권하면서 아래와 같이 그 예식 절차를 제시해 본다.

준 비

- ①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차례지내는 방을 잘 정돈한다.
- ② 묵욕 제제하고 단정한 옷으로 정장한다.

- ③ 고백성사로써 마음을 깨끗이 한다.
- ④ 정성껏 차례상을 차리되 형식을 갖추려 하지 말고 평소에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린다.
- ⑤ 차례상에는 촛불(2개)과 꽃을 꽂아 놓으며 향을 피워도 좋다.
- ⑥ 벽에는 십자고상을 걸고 그 밑에는 선조의 사진을 모신다. 사진이 없으면 이름을 정성스럽게 써붙인다.
- ⑦ 차례상 앞에는 깨끗한 돗자리 또는 다른 깔개를 편다.

미 사

될 수 있는대로 가족이 모두 함께 아침미사에 참여하여 본당 공동체와 함께 선조와 후손을 위해 기도하며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린다.

차례 예식

- ① 성호
- ② 성가: 가톨릭 성가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부른다 (가족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 ③ 독서: 아래 제시하는 성서 구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봉독한다. 가) 요한 14,1-14 나) 요한 15,1-12 다) 요한 17,1-26 라) 루가 2,41-52 마) 마태 5,1-12 바) 로마 9,1-18 사) 로마12,1-21 아) 1코린 13,1-13 자) 예레 5,6-20
- ④ 가장(家長)의 말씀: 가) 선조들을 소개하고 가훈, 가풍, 선조의 말씀을 전해줌. 나) 오늘의 집안 현실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이야기함. 다) 하느님의 말씀과 선조의 유훈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대화를 통하여 사랑과 일치를 다짐.
- ⑤ 큰절: 서열순으로 영전에 큰절을 드린다(남녀 가리지 말고).
- ⑥ 사도신경, 부모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부부의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기도서를 참조).
- ⑦ 참석자는 모두 신자들의 기도를 바친다.
- ⑧ 성가: 가톨릭 성가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 (가족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 ⑨ 주의 기도: 다 함께 바친다.
- ⑩ 식사: 차례 음식을 나눈다(음복·飲福)-사랑과 일치
- ⑪ 성호: 성호긋는 것으로 예식이 모두 끝난다.

2월 12일은 재의 수요일이며, 이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

사순절이란 부활을 준비하며, 통회와 보속으로 재를 지키는 40일 동안을 말한다. "사람아, 너는 흠에서 났으니 흠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창세 3,19)".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며 참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다져야겠다.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고려 안경원**  
전주 중앙성당 정문,  
성바로 서원 옆  
☎ 72-5770  
김홍균(베드로)

**나들이 미용실**  
\*신부화장 \*드레스대여  
\*사모관대 대여  
\*부케 알선 \*사진촬영  
이리경찰서앞(하야전물)  
☎ 2-7901  
김숙자(실비아)

**박승창 산부인과 의원**  
(팔달로변 중앙성당 옆)  
전주시 서노송동 636-5  
전주 ☎ 4-9026  
이정희 (마리아)



# 교 구 소 식

1. 50주년 중앙위원회 : 11일 오전 10시30분, 장소-교구청
2. 자연법적 가족계획 사용자를 위한 교육  
대상-미혼 남녀, 피임을 원하거나 임신을 원하는 여성(부부동반 환영)  
가톨릭센터, 행복한 가정운동 상담실(3-5098), 11일 오전 10시~12시
3. 2월중 교구 꼬미씨움 회의 : 일시-16일 오후 2시, 장소-전동천주교회  
대상-각 꼬미씨움 간부, 직속구리아 및 브레시디움 간부 전원
4. 성화를 위한 특별 성령세미나 개최 : 일시-15일 오후 1시~17일 오후 4시  
장소-군산 둔율동성당, 지도-총광섭 신부님(전국 봉사회장, 서울교구 사목국장)
5. M. E 소개모임 : 16일 오후 2시30분, 가톨릭센터 회의실, 재모임 : 16일 오후 3시
6. 여성 제21차 꾸르실료 : 21일~24일까지, 접수마감- 15일  
※ 희망자는 본당 신부님과 상의 바람
7. 성소 피절안내 : 대상-남자 고등학교생(교교 진학예정자 포함)  
일시-23일~25일(2박 3일), 장소-프란치스코회 서울 정동수도원  
참가비-3천원, 문의처-(02)753-4637, 753-4690
8. 전주교구 교리교사 2월 월례모임 : 17일 오후 5시 30분, 가톨릭센터
9. 김반석(베네딕도) 신부님 주소 : [520] 전주시 덕진동 1가 1437-1  
거성경기장이파트 나동 102호

## 축! 신앙대학 제 1기 졸업식

11일 오후 7시, 장소-가톨릭센터 교육관 많은 축하 바람

※ 가정기도 시편 : 25 : 1-11 독서 : 1 고린토 3 : 16-17 복음 : 마태오 13 : 1-9

### 잠 간!

#### 다음주일은 난민 돕기 헌금의 날

지난 해, 멕시코 지진재난과 콜롬비아 화산으로 인한 재난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어려운 처지에 아무런 도움의 손길조차 생각지도 못했고, 더구나 멕시코 재난때는 우리 선교신부님들의 무사함에 감사의 표현조차도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우리들이었다.

현재 역사상 가장 최악의 가뭄으로 황폐된 아프리카 24개 나라의 1억5천만 인구가 굶주림의 위협속에서 매일 12,000여명의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다. 살아남은 자들도 영구적인 육체적, 정신적 고통속에서 허덕이고 있고 매년 수십만의 인구가 이미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신앙의 의지가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다음주일은 교구에서 난민들을 위한 특별헌금을 모아 고통받는 그들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은 날이다. 우리 모두 따뜻한 정성으로 뜻을 같이 하자. 하느님 앞에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이라는 존엄한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 요심이 (653) 김병오

우리가 가톨릭의대는  
국민의여망에  
의하여

장애자들을  
모두 구제했는데

당신들도  
국민의소리를  
존중하는

가톨릭을  
본받으시요

### 정기총회 소집공고

정관 제32조에 의거 제13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조합원께서는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 1986년 2월 16일(일요일) 오후 1시30분
2. 장소 : 전북예술회관(구 시청 옆) 4층 공연장
3. 부의안건 :
  - ※ 총회참석시 지참물 : 조합원통장, 주민등록증, 인장
  - 1986. 1. 31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이 증 두**

안경의 생명은 좋은 렌즈  
정확한 안경

## 제 일 안 경

친절과 성실로 교우여러분께  
별가봉사

전주 전동성당 사거리  
(신호등 앞)

2-0102 · 72-3225  
김스테파노 김마리안나

\*혼수(회갑)웃감 | 도  
\*특수 파티복 | 매  
\*고급 침구류 | 상  
\*각종 솜 일체 | 사  
\*커벤지 |

## 서울 주 단

☎ ③0453 ⑤09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 돈보스꼬 청소년센터 모집안내

우편번호 : [1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6동 4491  
훈련생 모집직종 : 선반 · 기계조립 교육기간 : 1년  
대상 : 중졸 및 이와 동등학력자(인문계 교졸도 가능)  
연령 : 만 16세~22세  
특혜 : 기술교육 무료, 2급 기능사 학과시험 면제  
연락처 : (서울) 833-4010 · 4085, 모진부  
모집마감 : 1986년 2월 15일(17일 시험), 기숙사 있음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수·사 2-7032 아파트 75-6389

주임신부 김용태 부목사 김기곤 사목회장 노인석

1. 구정 합동 위령미사: 오늘 각 가정의 선영들을 위해 미사예물 봉헌합시다
  2. 재의 수요일: 12일, 단식과 금육을 지킵시다 재 축성예식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 신학생 후원기금 모금합니다: 12일부터 부활대 축일 까지,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서 저금통을 가져가세요
  4. 교직자 릴레회: 16일 공식 미사후로 연기합니다 초중·고·대학 선생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5. 꾸리아 릴레회: 16일 오후 2시로 연기합니다 각팀의 잔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6. 청년회 정기총회: 다음주 저녁 미사후 남녀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7. 금주의 전례담당: 제1조, 차주는 제2조 담당입니다
  8. 부녀 1일피정: 14일 9시30분~오후 5시, 가톨릭센터에서 있으니 본당 부녀들은 모두 참여하세요. 참가비-2천원(중식대 포함) 미사 준비하세요
  9. 미사시간 변경: 저녁미사-7시
  10. 제13차 노송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 일시-1986년 2월 16일 12시30분 장소-노송천주교회, 조합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1. 이후아파트 소식: 성모회 상임위원 선교-하야가다·차장-이유리안나, 교육-진요안나·김테레사, 전례-이철크·이테레사·이에우프라시아, 성가-박정선·김안젤라·홍들라라·권달라, 사회복지-이막달레나·김릿따·최레지나, 청소년분과-박글라라·조아네스·김세라, 애경-장유리아·한말지나·최바울라·한테레사, 구역분과-최화성·이우솔라, 판매부-안남천·김정혜·박순분, 성물부-남수산나·백베아프리스·코스텔라
- 지난주 봉헌금: 517,995원 교무금: 924,000원 신축금: 69,000원

3. 본당 푸르실로 울드레아: 18일 저녁미사후
  4. 본당 우정의 날: 26일 저녁(예비자 초청)
  5. 예비자 1인 인도 운동: 꼭 실천해 봅시다
  6. 차주전례: 해설-김은수, 독서-이상옥·김태관 봉헌-유춘근회장 부부
  7. 은인을 구합니다: 순정이 주보를 봉헌해 주실 분을 구합니다. 한주일에 5천원입니다
  8. 사순절 돼지 저금통·좁도리 모음: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28,420원 교무금: 26,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택창 사무실 " 사목회장 김낙균 수녀원 2-2276

- ※ 신부님 이·취임식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사순절을 뜻있게 보십시오 성지가지를 10일까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2. 12일 재의 수요일 금육과 단식: 14일 금육
  3. 성심회: 13일 오후 2시 반장님 릴레회: 13일 오전 11시
  6. 예비자 교리 성인반-주일 공식 미사후(신부님·수녀님 담당) 학생반-토요일 오후 6시(수녀님 담당)
  5. 주일학교 졸업미사: 15일 오후 4시
  6. 금주 봉헌: 김낙균·김경자
  7.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함문권, 독서-①문치구 ②박병환 공식미사: 해설-김배근·김은경 독서-①김낙균 ②장기호 저녁미사: 해설-강경화, 독서-①김정민 ②진경선
- 지난주 봉헌금: 370,350원 교무금: 335,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사무실 2-5238 수녀원 "

주임신부 김기수 사목회장 김성철

1. 사도회: 16일(다음주일) 저녁미사후
  2. 꾸리아 회합: 16일 오후 2시
  3. 성우회: 16일 공식미사후
  4. 주일학교 개화: 16일(다음주일) 오후 2시, 3시 미사
  5. 예비자 교리: 주일 공식미사후
  6. 재의 수요일: 12일 단식과 금육(집에 있는 성지가지 성당에 내주세요) ※ 10시 어머니 미사 없고 저녁 7시에 미사
  7. 빈첸시오회: 16일 꾸리아 회합후
  8. 외국난민 2차 협금: 16일(다음주일)
  9. 매주 금요일(사순절 동안) 저녁미사후 공식 십자가의 길 기도 있음
  10. 주일학교 자모회: 14일, 어머니 성가연습후
  11. 축! 결혼: 16일 12시, 복자성당, 주례-김기수신부 신랑-윤준석(요한)군, 신부-신판순양
  12. 금주 성당청소: 월-평화의 모후pr 토-구세주의 모친pr 차주 성당청소: 월-사랑하오신 어머니pr 토-순결하신 어머니pr
  13. 금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이상인 ②조성호 차주전례: 해설-김은수, 독서-①천건 ②이갑진
- 지난주 봉헌금: 268,310원 교무금: 586,95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치삼 사무실 2-3222 부목사 김희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병오

1. 자모회: 공식미사후
  2. 성화회·교미시음: 다음주
  3. 소년 꾸리아: 9일 오후 1시30분, 사제관 2층
  4. 성지가지: 12일 오전까지
  5. 대견신협 제13차 정기총회 16일 오후 1시30분, 예술회관
  6. 어머니 성가대 정기총회 14일 오후 2시, 성가책 지참
  7. 다음주 봉헌담당: 정진훈 부부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최충만,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석 공식미사: 해설-서정옥, 독서-①이종두 ②백종훈 저녁미사: 해설-김수월, 독서-①소병윤 ②주목성
- 지난주 봉헌금: 893,670원 교무금: 450,000원

(상관)

사제관 79 사무실

주임신부 이상철 사목회장 이철우

1. 구역장 임명: 공기구역-오철규 수고 많이 해주세요
2. 구역 월례회 일정: 11일: 강덕용·김종석 13일: 의암-강덕용·이옥동, 마지-한동산·문길석 수월-사무장·양재철, 상·하신-이정우·안운기 14일: 서당-사무장·여정진, 내정-강덕용·양대환 신홍-유순천·이수복, 백정-한동산·김영완 15일: 의어두-한동산·유순천, 내어두-사무장·최상우, 석장-강덕용·유춘근, 색장-이옥동·양대환, 원신-강문욱·김종석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종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정선 수녀원 2-4804

1. 재의 수요일 미사: 12일 저녁 7시-지하 성당 성지가지는 11일까지 사무실에 가져오세요
  2. 특별헌금: 20만원-익명
  3. 구역기도 모임 우진아파트 2동206호, 13일 오전 10시
  4. 금주모임: 글라라회
- 지난주 봉헌금: 530,850원 교무금: 701,000원 미수금: 225,500원